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1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3일 (음력 11월 17일) 수요일

나주 오리 도축장서 H5형 AI 항원 검출

나주에 있는 '사조화인코리아' 오리 도축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육용오리 8300마리를 사육하는 고흥군 동강면 농가에서 나주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으로 출하된 오리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곳은 인근 AI 고병원성 확진 판정 농가 3km 이내 방역지역 농가로 지난해 12월 28일 일제검사 결과 음성을 받았으나 도축장 검사 과정에서 항원이 검출됐다.

육용오리 8300마리 사육 고흥군 동강면 농가서 출하
영암 덕진·나주 남평 출하 3만6700마리도 전량 폐기

방역당국은 도축장을 폐쇄하고 당일 해당 농가에 이외에 영암 덕진(8400마리)과 나주 남평 (2만7000)에서 출하된 3만6700마리 오리를 전량 폐기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AI 정

밀검사를 의뢰, 이르면 이틀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고흥 동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 농가 3km 이내 오리 사육 1개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43농가에 대한 AI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남 전 지역과 사조화인코리아 소속 모든 계열농장·도축장 등에 대해 2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한편 울겨울 들어 전남 오리 농장에서는 영암 4건, 고흥 1건, 나주 1건 등 모두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꿈과 현실

윤정현 광주시장은 최근 '무술년, 새해는 시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시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송·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중추와 사람 중심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내내에도 광주가 담당하고 넘쳐난 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는 전라도가 정도(定都) 천년이 되고 그동안 문제안 정부와 정치권 노·사·민 등 각 주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광주의 시간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새해 시정의 주요 운영 방향을 ▲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 ▲ 더 나은 자치공동체 조성 ▲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 도시상 실현 등 37개로 약속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식서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목적을 밝혔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자료사진=뉴시스

박지원 “안철수, 제2의 용팔이-정운갑 대선 안돼”

“보수대연합 반드시 저지 할 것” 목소리 높여



국민의당 광주시당이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열사에 참배하며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전 대표가 문향을 하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론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새해 벽두에 '제2의 용팔이-정운갑 사건'까지 언급하며 "보수대연합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표는 무술년 새해를 맞아 2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추모탑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호남과 비(非) 호남으로 나누는 박정희 망령을 피살하는 정치적 야합으로, 5·18 영령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

고 밝혔다.

앞서 묘역 입구 민주이문 방명록에도 '보수대연합 야합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글귀를 남겼다. '동학, 화생독립운동, 5·18, 6·15, 통일로 가는 길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는 문구도 더했다.

그러면서 통합 추진을 위한 전당대회는 "무효"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헌 당규상 주요 정책과 사안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당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함에도 투표율이 23%에

그친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박 전 대표는 "전통적으로 보면 당권을 가진 측에서는 80%의 당 의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호소도 법원 판결로 인용되기 어려운 게 관행이지만, 전대는 전대 의정만이 소집할 수 있고, 의정만이 진행할 수 있는데 통합 반대파인 이상돈 의장과 부의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전대를 소집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어,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 전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 "과거 정당사를 보면 합법되지 않은 전대는 이른바 '용팔이 각목' 전대, 김영삼(YS)을 제명시킨 정운갑 전대가 있는데 용팔이, 정운갑을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잘 안다면 안철수 대표가 제2의 용팔이, 제2의 정운갑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야합 분쇄를 지방선거 전략과도 연계시켰다.

박 전 대표는 "정당은 선거를 위해 만들어지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일부에서는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17개 광역단체장은 물론 227개 기초단체장에서도 국민의당이나 통합신당이 전멸할 것이라고 분석한 반면 다른 한쪽에선 통합하면 제2로 경총 편다고 분석해 혼란을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대연합을 분쇄시키고, 그 힘으로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통합시너지 효과를 부인하며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남규 기자

‘무등산 옛 모습 회복 본격화’

전선 지중화·묘지 이전 추진

무등산의 옛 모습을 위해 전선주가 사라지고 1만기에 달하는 묘지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를 '무등산 옛 모습 회복의 해'로 정하고 경관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사무소는 우선 제4수원지 무등산 진입로부터 원호사 분소까지 6.4km 구간에 길게 늘어서 있는 전선주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다.

이 구간에는 현재 100여개의 전선주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무소는 한전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초 지중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무등산 곳곳에 분포돼 있는 묘지 이전 사업도 올해 상반기에 실시할 방침이다.

위성사진을 통해 무등산 곳곳에 분포된 묘지를 분석한 결과 5999기의 묘가 조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무소는 순차적으로 고지대에 있는 묘지부터 이전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묘지 관리자 등이 이전을 희망하면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무등산 정상에 있는 방공포대 이전과 원호사 집단시설 정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본 사 사 령

▲ 박 응 식

편집국 지역사회부 (신안 담당) 기자
면 직

<2018년 1월 3일자>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에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

